

# 장제스는 파시즘에 우호적이었다?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중국에서는 장제스 총통이 비밀리에 푸른셔츠단이라는 엘리트 조직을 결성했다. 푸른셔츠단의 한 대원은 "처음에는 파시즘을 후진적으로 생각했다"면서 "그러다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진보적인 수단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파시즘의 일차적인 목표는 국가 보전이었다. 푸른셔츠단의 기관지는 사설에서 "파시즘이란 파멸 직전의 국가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와 독일을 구했다. 이탈리아와 독일 파시스트 정신을 모방해 폭력 투쟁의 길로 나서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

장제스 총통은 파시즘 도입에 열정적이었다. 그는 푸른셔츠단 대원들에게 "파시즘이 중국을 구원할 것인가"라고 물은 뒤 "그렇다. 파시즘이야말로 중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장제스는 서구인들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싫어했으며, 히틀러의 지도자 원리를 수용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를 옹호하느라 세월을 보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장제스는 히틀러의 집권 8개월 뒤 당 간부들에게 "파시즘의 핵심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고 말했다. 국가는 지도자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재건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자연히 혁명 정신을 갖춘 위대한 인물로서 모든 당원의 본보기로 일한다. 한편 개별 당원들은 지도자와 집단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데 간접적으로는 사회와 국가, 혁명을 위한 일이다. 우리는 혁명집단에 참여한 순간부터 권리와 생명, 행복까지 집단에 위임하고 이들 모두를 지도자에 바쳤다. 그래야만 진정한 파시스트라 불릴 수 있다."

히틀러의 첫 임기 4년간의 치적은 생각이 같은 다른 사람들을 고무했다. 파시즘은 불평불만자나 권리를 빼앗긴 사람뿐 아니라 선의를 가진 책임자들을 파고들었다. 젊은이뿐 아니라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신선한 대안으로 받아들인 지식인 계층들도 끌어들였다. 국가마다 개성을 가진 파시즘이 발호했지만 히틀러나 무솔리니 등의 추종자는 정신적인 단합만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여겼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었다.

출처: 아돌프 히틀러 결정판 1 p.687~688



